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기독교 교육학자 김선요 교수

편집자 주: 이번 호의 특집 주제인 기독교교육에 맞추어서 이번 달에 소개하는 분은 서울여대 김선요(교육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교육분과장 등을 맡아 수고했으며, 기독교 대안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뷰는 성균관대학교의 현은자(아동학과, 청소년학과)교수가 맡았습니다.

김선요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농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의 앨버타 대학교 Ph. D.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교육의 이해-성경적 비판과 해석(교육과학사)이 있습니다.

인터뷰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졸업 후 East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석사,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장을 거쳐 현재는 같은 대학의 생활과학 연구 소장으로 있으며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Q. 현은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김선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모태 신앙인 아내와 결혼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 내외는 교회 지휘자와 반주자로, 아들 내외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인 저 보다 나은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캐나다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가장 힘들었고 후회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5살, 2살 무렵에 떠났는데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81년에 교수가 45명밖에 되지 않는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문이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처음 학교를 보았을 때 '여기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한 80년대 초반만 해도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가서 뭘 하나' 하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지만



김선우 교수

그때는 그것 외에는 생각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Q. 현은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A. 김선우

신앙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경기도 용인의 '아곡'이라는 마을에서 당시 저의 지도교수님과 함께 지역사회개발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5년 이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커뮤니티 스쿨처럼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마음이 열린 분이셔서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곳에 일 년 반 동안 파묻혀 있으면서 인류학적으로 많은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시의 일기장을 간직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는 4년간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60여호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네사람들과 헤어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더군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아 그래, 이거구나!' 그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저는 운동가 기질이 전혀 없었습

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도 공부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2000년도에 기독교 대안교육 협의회에서 대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간사라는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나는 심부름꾼이며,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삶의 가장 기본자세를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Q. 현은자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요?

A. 김선요

신앙은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은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 공적인 영역, 즉 문화, 교육, 정치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영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34년 강단에서 일한 후 퇴직했는데 사역 초기에는 기독교 대안 교육운동을 위해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했던 일들을 성찰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아

닌 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뼈가 부서질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몸은 내 의지대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로 일하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기독교교육도 해야 하고, 그걸 다하려면 제가 '슈퍼맨'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몸이 원하는 것은 무시하고 채찍질만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으니 그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라.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면서 채찍질만 하지 말고 "너 못된 주인 만나서 힘들지?" 하고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회랍(그리스) 사상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도,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전이니 잘 보살피면서 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택 외부를 안내하고 있는 김선요 교수

Q. 현은자

오랜 기간 기독교 홈스쿨링과 대안학교 운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섬겨오셨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A. 김선요

공식적인 직함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모두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여자대학에서 마지막 3년은 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70% 정도가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매주 월요일에 2시간 이상 기독교대안교육의 관점에서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점과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원하는 학생들은 와서 들도록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이 10명도 안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안와 30분 정도를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3주 동안 빈 강의실에 혼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접어야지 할 때 학생들이 찾아와 포기하려던 마음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퇴임식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왔더군요. 그런데 제가 퇴임한 후에 이 일을 부탁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교수들도 논문 쓰느라 매우 바쁘는데, 누가 맡으려고 할까 걱정하던 차에 다행히 교육학 교수님 한 분께서 그 일을 이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 오신지 오래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닌데 지난 삼년동안 지켜보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께서 계속 그 일을 맡고 계십니다. 요즘은 제게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요청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해주곤 합니다.

Q. 현은자

선생님께서서는 신학대학이 아닌, 서울여대의 교육심리학과 교수로서 오랜 기간 봉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김선요교수 자녀의 이름을 세긴 기념석



김선요교수가 직접 골라 세워둔 우체통



저서를 안내하고 있는 김선요교수

A. 김선요

서울여대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는 절반의 시점까지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교육인가?”라는 회의였습니다. 성균관, 국자감 같은 옛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입신, 출세, 양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가?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돕는 것이 교사인지 교육이 그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나 비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에 계신 신학 교수님들과도 의논했지만 흡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안식년을 받아서 1999년도에 칼빈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박사과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이 분야의 책도 뒤져보고 공부도 했지만 일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었습니다. 배경지식도 없는데다 처음엔 일 년 동안 공부 해 원고라도 들고 오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렸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기독교대안교육 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라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이걸 주님이 저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저도 손해고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인 겁니다” 하고 여러 날 기도를 했지만, 저에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냥서있겠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국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더 이상 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 칼빈대학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2000년도에 봄에 돌아와서 11월에 처음 개최했던 세미나 주제가 ‘기독교 대안교육과 홈스쿨 운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시작했지만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40명 정도 들어가는 세미나실의 반이나 차겠나 싶었는데 오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리가 부족해 2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국제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모두들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속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되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곡’에서의 경험처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

나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 저를 가르치신 것 이었습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경험교육이었습니다. 그때 대표 간사를 맡으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진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교육이 토양은 척박했고 세미나를 계속해오면서 그 싹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Q. 현은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왜곡된 한국의 학교 교육 분위기를 생각할 때 선생님께서 해 오신 기독교 교육 사역은 개념 정립부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김선요

초창기서부터 지난 17~18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자료를 달라고 손은 내밀어도 함께 힘을 합쳐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초기 기독교교육자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압도합니다. 세상의 위력을 가볍게 보고 기독교 대안운동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도 중과부적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지난 17년 동안 기독교 대안운동을 하는 동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태평성대라고 볼 수도 있



김선요교수

지만, 기독교대안교육을 위해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안교육은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햇별이 내리 쬐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의 이사회, 교장, 교사들은 지난 좋은 시절에 분발해야 좋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슈퍼맨인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위에서 가르쳐야합니다. 세상일 할 것 다하고 잠도 안자고 새벽 네 시에 '이제 기독교 교육 해야지' 하다보면 과로로 죽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아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다 해놓고 마지막에 기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가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의 것이 우리 일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현은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며 세상의 일반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A. 김선요

많이 알았으면 힘이 덜 들었을 텐데 해보니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 했었고 퇴임하면서 쓴 책(현대교육의 이해-성경적 비판과 해석)이 사실은 칼빈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여대 대안교육아카데미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역자들과 토론하고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과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교육과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교육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교육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지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문제 제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대안이 무엇인가 각 장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교육학 책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질문을 던진 책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아직 많다는 것을 알기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또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은 기독교인들만 보는 것이라고 비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 기독교인들도 '아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광부라면 기독교 교육은 금맥을 찾아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맥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캐는 광부가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저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독교 교육을 논하는 것이니 이것보다 더 확고한 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가르치려고 세상에 오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일을 시작해서 제가 가장 위로받은 것은 예수님도 저와 같은 선생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교육학 책은 아니지만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원천적인 에너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옷을 잘 입고, 키가 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힘이 들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데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독교학문 연구회,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 좋은교사 모임 등의 기독교 단체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Q. 현은자

기독교 교육 사역의 선배로서 대학과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후배교수나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김선요 - 간혹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후진이 나와 합동 업무를 하며 그가 세워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칼빈대 학교에 '오퍼웰(Donald Oppewal)'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나는 내 자신의 업적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업적을 남기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너 좋은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려고 공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입시 제도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한번 바꾸면 어떨까, 진정으로 남 주기 위해서 섬기는 철학을 바탕으로 남을 섬기도록 한번 교육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눈을 떴을 때보다도 눈을 감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현은자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대안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김선요

기독교 학교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은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정부나 교육부에서 이곳이 인가된 시설인가 비인가 시설인가 따지기 시작할 것이고 교사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홈 스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 저런 참견을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에 베이스캠프를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제대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걸음으로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상태로는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면 쓸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선생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남 주는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은자

오늘 해주신 말씀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교육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